

우리마을 여름 풍경

작가 소개

2024년 화창한 어느 여름날, 목면에 사는 김주한 학생이 동생들과 하교하는 길에 본 마을(안심리)의 여름 풍경을 담아 그림을 보내왔다.

높고 푸른 하늘과 두둥실 떠있는 구름. 드넓은 들판과 붉은 지붕 농가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고 저 멀리 푸른 산이 보이는 한적한 우리마을을 표현하였다.

- 김주한 목면초등학교 3학년 -

지면안내

- 1면 우리마을 여름 풍경
- 2면 우리는 텃밭정원사
- 3면 청문기자단/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4면 푸드플랜 출하농가 김정숙/우리 마을의 모습과 바람
- 5면 여름이 오면 떠오르는/농촌마을정책사전
- 6면 목면 여우고개 전설(下)/영상기사(달빛마켓)
- 7면 귀농의 삶을 문화로 접근하기
- 8면 지역활성화재단 소식



꽃과 식물에게 사랑을 주고 치유를 받는다.

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식물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많았던 사람들, 집안의 반려 식물, 마당 한쪽에 심어진 꽃과 나무를 잘 가꾸고 다듬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 '텃밭 정원사' 교육생들이다.

넝쿨 식물을 지지하기 위해 말뚝 박는 소리가 힘들어 보이지만 정성껏 작업하고 있다. 유도 끈을 묶어주고, 잡초와 화초를 구별해 솥아 준다. 식물의 특성과 가꾸는 요령을 현장에서 묻고 강사님이 알려준다. 칠갑산 자락 깊은 숲은 신록이 우거져 봄기운이 풍성하다. 하늘은 높고 살랑이는 바람결이 나무와 식물들이 흔들흔들 춤을 춘다. 여기는 텃밭 정원 실습장이다.



청양에서 텃밭 정원 교육

칠갑산생태교육센터(대표 김기태, 이하 생태교육센터)에서 '퍼머컬처 텃밭정원 교육'을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기획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교육센터는 지역에서 환경교육, 산림교육, 생태학습 체험, 목재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정원, 텃밭 교육과정은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식물 성장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식물의 종류와 특성, 심는 요령, 관리 방법, 토양에 대한 정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농장에서 실습을 통한 현장학습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30명이 수료했다. 올해는 15명이 교육받고 있다. 텃밭 정원 전문 강사는 오도 선생님(풀무학교 농업교사)이다.

“오도 선생님의 경험과 농사 비법은 탁월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성으로 수업을 듣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라며 황영순

씨(생태교육센터 사무국장)는 말한다.

생태교육센터 졸업생들은 배운 것을 실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실력을 높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고 동아리 모임 '정원드림'이 만들어졌다. 정원드림은 주기적으로 학습모임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텃밭 정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귀농한 부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구고, 개간하여 몇 년을 가꾸었다. 농사를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생산량이 나오지 않았다. 농사가 힘들어질 때였다. 구석구석 심은 꽃과 나무들이 보기 좋게 자라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이쁜 꽃과 식물들을 점차 늘렸다. 농사는 줄어 들고 정원 공간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대치면 오룡리에 있는 텃밭 정원이다.



텃밭 정원 공간을 만든 농부는 이훈환, 황영순 씨 부부이다. 농지를 정원과 텃밭 가꾸기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전문 학습장소이자 체험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길고 긴 여정은 10년이 걸렸다. 프란치스코 정원이라 명명한 텃밭 정원은 지금도 계속 변신하고 있는 정원이며, 숲 공간이고, 텃밭이다.



청양에서 유일한 정원, 텃밭가꾸기 체험과 학습 공간이 되었다.

교육을 받는 이은희 씨는 “텃밭 정원 수업을 통해 식물과 꽃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심어보고 가꾸어 보니 내 땅에 일구고 싶어졌어요. 동네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공간에 심어진 식물을 볼 때 마을정원(커뮤니티가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생태교육센터에서는 지난 6월 2일 옛 방식으로 손모내기도 진행했다. 잃어버린 것들, 잊혀지고 있는 것들을 간직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초등학교생과 함께 온 부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눈에 들어가 못줄을 띄우고 손으로 직접 모를 심었다.

텃밭 정원 수업을 주관한 생태교육센터 김기태 대표는 “자연과 숲을 닮은 텃밭을 일구고 싶어요. 전통 방식의 텃밭 농사가 곧 문화인데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삶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텃밭이 곧 정원이요 정원이 바로 텃밭입니다.”라고 말했다.

* 퍼머컬처(permanent culture)

영구적 농업이란 뜻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농사 짓고, 생태 지향적 삶을 실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전귀정 마을기자〉

제호이야기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미디어활동가가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4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재단이 만드는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재단법인 청양군청소년재단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는 청문기자단

지난 2021년 출범한 청양군청소년재단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하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 청소년기자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양담소에도 청소년들의 글을 실어보고자 활동팀 김혜진 선생과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재희(18)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모습



2층, 1층, 총별안내, 3층

청양군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의집 김혜진 선생이 담당하는 일은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청소년 잡지 발간 업무이다.

2017년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소년 수련 시설로써 동아리 활동, 청소년 카페 음료 1잔 무료, 다양한 활동 등을 기획, 운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루에 50~70명 이용하고 있으며 날씨가 더워지면 이용자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방과후야카데미팀은 평일에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초등반, 중등반 20명씩 정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녁식사, 귀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재희 학생에게 청양군 청소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물어봤다.

명재희 학생은 “청양군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 등 교육시설 및 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한다.

저는 고3이지만, 예술경영으로 가고 싶은 꿈이 있어 청양군 청소년 정책에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계속해서 기자단 활동에 대해 명재희 학생은 “신문 기사를 써보고 싶었고 주제나 원하는 것이 환경친화였는데 청양신문사에 기사를 썼을 때 주위 반응이 좋았다.”며 “기사를 준비하면서 청양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연계해서 정책질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이들이 주도하는 활동이고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본다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내가 쓴 기사가 신문 지면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늘어난 것 같다. 성공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라며 기자단 활동의 장점을 설명했다.

기자단 활동에 애로사항이나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과 기자단이 더욱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묻자 명재희 학생은 “기사를 더 잘 쓰고 싶은데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다. 5명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청양신문에 시민기자단으로 연계 활동하고 있다.”라며 “자유롭게 집에서 기사를 작성하는게 단점이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명재희 학생은 “청양중, 청양고에 언론동아리가 있고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명예기자단이 활동하고 있다”며 “회의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연계 활동도 해보고 싶다. 민주 시민의식이 함께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필 마을기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남선_마을기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상추씨를 뿌리면 상추가 자라고 꽃씨를 뿌리면 꽃이 핀다.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자라서 토마토 열매가 달린다.
가지가 자라고 오이도 자라고
고추나무에는 고추꽃 피고 청양고추가 매콤한 맛의 향기를 더한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면,
손을 잡지 않아도 따스한 온기가 가슴으로 느껴져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면
욕심없는 행복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닮은 사람과 한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빛이 말한 것을 읽을 수 있어
가슴으로 포근하게 슬픔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름 없이 소박한 삶에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다면,
가끔씩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들뜬 가슴을 열어 세상을 헤쳐 나아간다면,
때때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손해 보는 삶이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빛나는 이름 남기지 못해도 작은 행복에 만족할 줄 안다면,
앞에 놓인 빵의 소중함을 경험했다면,
진실을 위해 소중한 어떤 것을 희생했다면,
먼 훗날 어둠이 조용히 내리울 때 삶의 잔잔한 행복을 차지했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푸드플랜 출하농가소개

인터뷰 - 김정숙 농가

푸드플랜으로 배우는 농산물, 함께 성장하는 마을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목면 송암리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82년도에 남편을 만나 청양으로 내려오면서 남편을 도와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Q. 푸드플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4~5년 전쯤에 면사무소에 갔는데 푸드플랜 출하 농가 교육이 있다고 교육받아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거 같아요. 때마침 우리 동네에도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Q. 푸드플랜 사업이 농업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A. 아무래도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상추나 엽채류 같은 것을 납품했는데 요즘엔 블루베리, 참외, 땅콩, 옥수수 등 새로운 것을 납품하였더니 인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심어보고 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푸드플랜 덕분에 더욱 열정을 갖게 되는 거 같아요!

Q. 푸드플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농사를 짓는 청양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관료가 따로 없어 농산물을 팔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이 “어머니! 어머니 농산물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라고 해주는데 빈말이라 해도 친근감 있고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가 세심하게 농민들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Q. 혹시 푸드플랜 시스템이 개선할 점이 있나요?

A. 청양 농민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웃음). 한 가지 있다면야... 저온 창고에 저장해야 하는 농산물이 생각보다 많은데 개개인이 저온 창고로 저장해서 출하하기에는 저장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농산물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Q. 농업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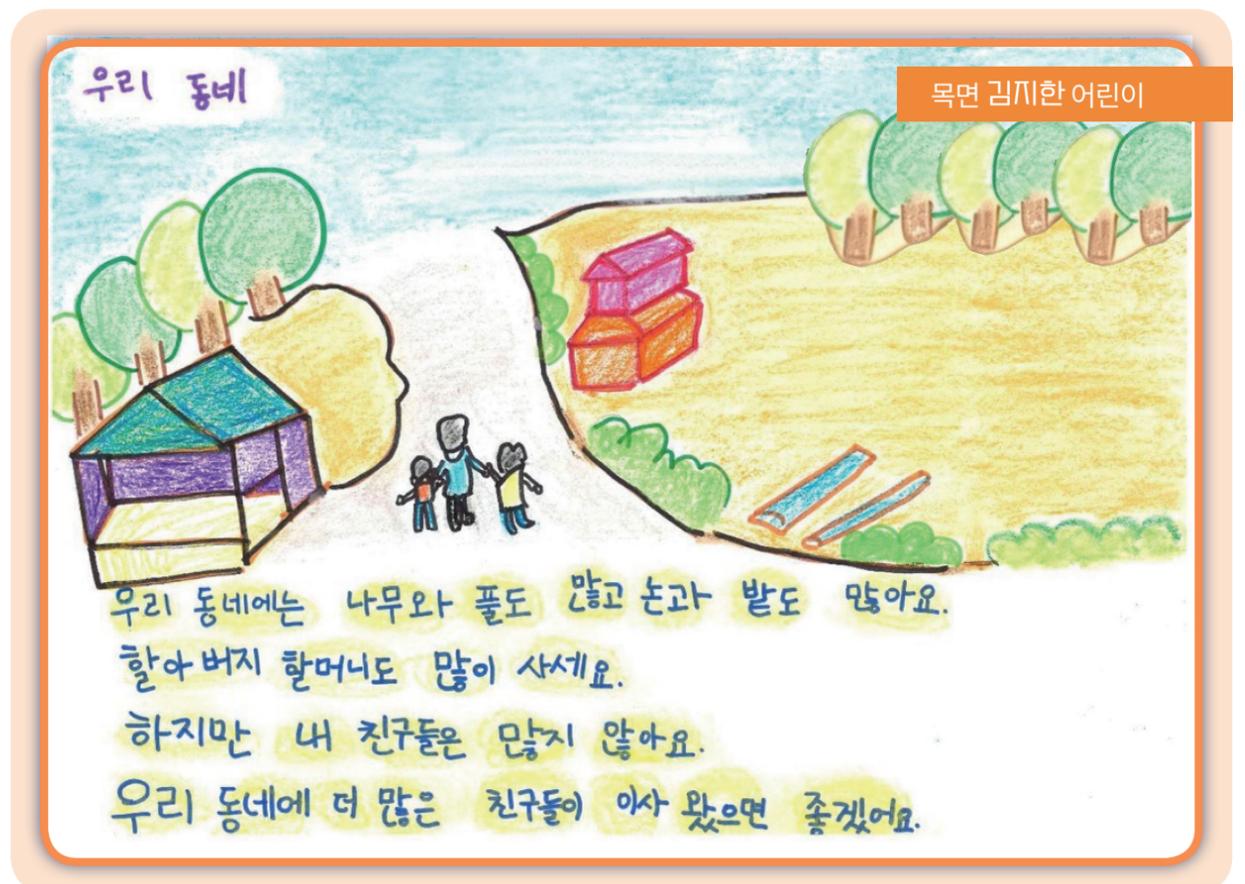
A.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수해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때, 그럴 때가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자연재해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농사지었는데 잠겨 버리니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Q.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출하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반응은 어떤가요?

A. 처음에 저랑 몇 분만 교육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요즘엔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 교육 받으셔서 저한테 포장해달라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이 상추며 마늘이며 팔아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 수 있다고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Q.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나요? 푸드플랜이나 마을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A. 앞으로도 푸드플랜에 농산물은 계속 출하할 계획이에요. 제철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할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맛있고 싸고 이러한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소비 트렌드가 무엇인지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자기고

여름이 오면 떠오르는 이야기

최미자_ 청양읍 주민

여름의 정취에 젖어들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억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여름 이야기들입니다.

| 이야기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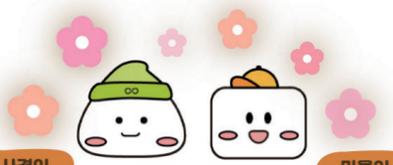
모기장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

여름밤이 되면 모기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던 그 시절, 아버지께서 초저녁만 되면 모기장을 미리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혹여나 모기가 들어올까 모기장 구석구석을 살피시던 자상하셨던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늘 애쓰시던 모습이 그땐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충이기만한 모기라 생각했지만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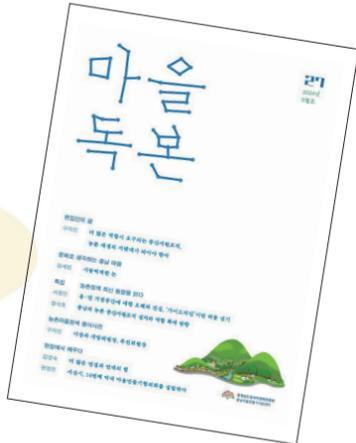
| 이야기2 |

이웃과 함께한 시원한 여름 추억

여름이 오면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옛날엔 냉장고가 없어 집집마다 김치 보관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는 다행히 산속에서 흘러 내려오는 맛 좋고 시원한 물이 365일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동네 산 밑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가가 생겨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우물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둬놓았다가 집집마다 항아리에 김치를 담가 그곳에 놓으면 끼니때마다 꺼내어 시원한 김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집 저집 친구들이 각자 자기네 김치를 꺼내어 그릇을 들고 모였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물론 그 김치를 서로 나눠 먹는 건 너무 행복한 추억입니다. 참 정겨운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캐릭터인 '마을이'와 '사경이'가 알려주는 **농촌마을 용어사전**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독본'의 농촌마을정책 용어사전 부분을 발췌하여 농촌 주민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정책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설명을 통해 농촌마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이가 알려주는 「농촌마을정책 용어사전」

사회적경제팀 캐릭터 '사경이'
마을만들기팀 캐릭터 '마을이'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과 법정리, 행정리, 부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오늘은 농촌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용어. 또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개념적으로 복잡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께요.

사경이는 마을이란 용어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음.. 저는 '내가 살고있는 곳' 이라 말할게 같아요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과 법정리, 행정리, 부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맞아요. 내가 살고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전에서는 '주요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을이란 용어도 지역이나 국가, 논의 범위, 활동 경험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해요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과 법정리, 행정리, 부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마을이란?

-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 살면서 형성된 집단
-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말 또는 마실 그리고 타운 (Town)이라고도 함
- 커뮤니티 (커뮤니티) 우리가 지향할 미래마을
- 주민이 일상행위를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이나 읍면·동 지역까지 포괄하는 개념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과 법정리, 행정리, 부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이러한 내용 알고도 실제 사용법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해요. 생각 외로 폐쇄적이고 차별이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마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마을독본 3월호〉

마을사전

알고보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만들기!

마을과 법정리, 행정리, 부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맞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의미가 있을수도 있어요. 마을이란 용어가 쉬운것 같지만 쉽지 않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요. 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고,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마을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어요~!

독자기고



목면 여우고개의 전설 (下)

임동민 _ 목면주민



그녀가 떠나자 그는 아침밥을 먹고 머슴살이할 때의 주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색시가 생겨 택일한 다음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상의 하자 주인은 기뻐하면서 장가들 때 쓰라고 엽전과 곡식을 줌으로 한 짐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색시는 집에 없었다. 색시가 오면 우리가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엽전과 곡식을 받아왔다고 자랑하려고 잔뜩 기대했는데,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색시가 나타나자 오늘의 사유를 말하며 기뻐하는데 색시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도 그들은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색시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훌쩍거리는 것이었다. 집에 짐을 놓고 와서 가져와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색시를 또 보내줬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고,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그랬다. 수상하게 생각한 그는

머슴살이할 때의 주인을 찾아가서 상의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참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다.

“색시가 나갈 때 치맛자락을 잡아 잘 보게. 혹시 늙은 여우인지도 모르니, 꼬리가 있나 없나 보란 말이야.” 박 씨는 끄덕였다. 혹시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박 씨는 잔뜩 긴장하고도 태연한 척하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다. 그러나 색시는 능글맞게도 바빠서 늦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색시의 뒤만 살폈다. 꼬리가 있는지 뒤가 불쑥 나와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보였다. 색시는 노란 치마꼬리를 뒤에다 대고 있었다. 박 씨는 잠자리를 청했다. 색시가 먼저 잠자리에 눕는데 허리를 구부릴 때 뒤가 불쑥 나오는 것이었다. ‘웁지, 불여우로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몽둥이를 들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몽둥이로 힘껏 색시를 향해 내리쳤다.

색시는 몽둥이로 다리를 맞았는지 “캥캥 캥캥”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단번에 여우로 변해서 도망가는 것이었다. 박 씨는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분해하고 있는데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박 씨가 문을 열자 밖에 여우가 앉아 있었다.

“이봐, 너 같은 구두쇠에게 뭐가 있다고 색시가 따르겠어. 이 구두쇠야! 굴비를 빨면서 굴비 한 마리 가지고 1년을 살래. 이 바보 구두쇠야.”

그는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갔다. 여우는 도망가면서 또 소리친다.

“이 구두쇠야! 네 주제에 누가, 네 마누라 된다던.”

그래도 박 씨는 또 쫓아갔다. 이렇게 해서 밤새 여우와 싸우다가 날이 밝았다. 그 이튿날 박 씨는 머슴살이할 때의 주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사연을 자세히 말한즉 주인은 한참 듣더니 “좋은 수가 있네. 나를 따라오게”라고 말하더니 벌떡 일어났다.

주인은 박 씨를 데리고 장터로 갔다. 박 씨가 장터로 가는 것을 여우가 어디선가 보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장터로 나온 주인은 박 씨와 서로 옷을 바꿔 입었다. 그리고 박 씨에게는 장터에서 하룻밤을 쉬라고 하고 밤늦게 주인은 지팡이를 든 채 박 씨의 옷을 입고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다. 주인이 고개에 다다르자 색시로 변한 여우는 그가 박 씨인 줄 알고 놀려 주려고 점점 가까이 왔다. 주인은 술에 취한 듯 흔들거리면서도 여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지팡이로 날째게 색시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그러자 “캥 캥”하고 색시가 여우로 변해서 필적 뛰더니 죽어 자빠지는 것이었다. 주인이 고개에 살면서 사람을 흘리던 늙은 여우를 잡아 죽였다. 이후부터는 고개에서 늙은 여우에게 흘림을 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에 따라 이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부른다.

청양담소 #여름호
마을공동체신문

마을영상기획단
박정기 활동가

2024 달빛마켓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달빛마켓’은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걸음, 쓰레기와 일회용품 없는 장터’라는 슬로건으로 청양읍 청춘거리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에 열린 이번 ‘플리마켓’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판매와 야외 음악 공연이 펼쳐져, 청양의 청춘거리가 활기를 띠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6월의 ‘달빛마켓’ 현장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기고



귀농의 삶을 문화로 접근하기

박일용 _ 남양면 주민

귀농인과 원주민들의 갈등에 대해

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해보기

전남의 한마을의 이야기이다. 이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 마을에 도시에서만 살았던 귀농인 A씨가 전입해 들어왔다. A씨는 마을 사람들을 잘 모르기에 인사도 하지 않았고, 마을 행사나 공동 작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마을의 원주민들은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갈등 관계가 발생했고, 끝내 이별을 하게 됐다.

이 마을의 원주민과 귀농인 A씨에게 발생한 갈등 관계는 인격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른에게 인사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귀농인, 귀농인을 수용할 수 없는 쪼잔한 원주민들로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한다. 인사에 대한 도시 문화는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위해선 최소한 통성명을 했다든지, 오랜 시간 오가면서 안면이 익숙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농촌 문화는 마을에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부터 한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의 인사문화는 다르다.

서로 다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갈등을 한자로 “畛 畛”에 “등나무 등”으로 쓴다. 畛과 등나무는 서로 얽히며 성장한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畛과 등나무를 보면서 인간 세계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갈등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해 새로운 삶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말이다. 농촌과 도시라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이들이 한마을에 살면 당연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갈등은 도시 문화로만, 내지는 시골 문화로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문화에 대한 이해

귀농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먼저 문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다. 대표적 문화학자 리처드 니버는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자연적인 것 위에 첨가한 인공적이며 2차적 환경인데”, 이는 “관습, 언어, 사상, 믿음, 습관, 사회조직, 기술적 제도법, 전수된 가공품 그리고 가치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한다. 즉, 인간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등을 기반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만의 혹은 사회적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문화로 마을에 전입하여 마을의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 고창에는 월봉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집성촌으로 10여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다. 이 집성촌에 출판업을 20여 년 운영한 B씨라는 사람이 귀농했다. 그는



폐교를 인수해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그는 크게 2가지의 영역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우선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사랑방을 만들었다. 그곳은 어르신들에게 고된 하루 일과 속 쉼의 장소였고,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지난 이야기들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둘째로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책을 출판하는 캠프를 진행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고유함을 느끼게 하고, 그 느낌을 그림과 언어로 표현해 책으로 출판하는 캠프를 지속적으로 오픈했다. 청소년들이 접한 것은 보존된 갯벌과 습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1500년 이야기를 지닌 선운사,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의 이야기 등이었다. 캠프 기간 동안 그들은 이상의 것들을 접하고 자신만의 느낌과 언어를 사용해 표현했고 책으로 엮어 냈다. 귀농인 B씨는 자신만의 문화로 기존 마을의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쉼과 마음을 살피는 것과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화를 창출한 것이다.

문화를 창출하는 귀농이 되기 위해 인정해야 할 것

귀농인 B씨처럼 자신만의 삶의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3의 문화를 일궈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귀농인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을 정리하여 설명하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공자는 40에 접어든 자신을 불혹이라고 하였고, 50에선 지천명이라고 하였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있어서 유혹 받지 않는 것, 하늘의 뜻을 알고 현재의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자가 말한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40, 50대에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자와 40, 50대의 학문의 동기와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세우며, 배움과 성찰을 목표 삼았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40, 50대는 8세 전후로 명문대 입학 위해 누군가에 의해서 뜻이 정해졌고, 20세 이후에는 대기업 취업이 목표였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이후에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그렇기에 40, 50대에겐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하는 말은 또 다른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도전 그 출발점

그렇다고 나만의 문화를 정립하는 것에 대해선 손 놓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귀농하여 돈만 벌며 살 수 없는 법이다. 귀농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만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가 무엇이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현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 105세 김형석 교수는 그의 책 “백 년의 지혜”에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30세까지는 지식을 쌓는 여정이고, 30세에서 65세 전후로는 사회에서 공존하는 삶이었다고 한다. 또한 하버드대에서 75년간 800여 명을 추적 조사해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발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관계 즉,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더불어 사는 삶’ 혹은 ‘공존’을 귀농인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출발해 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서 계속〉

작가소개

20대에는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성서를 공부했고, 30대는 아동기관(구, 고아원)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40대는 교육기관에서 종사했다. 현재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파파농장을 운영 중이다.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문의: 041-943-9911

청양군, 충남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 창업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쾌거



청양군은 지난 6월 20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충남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 창업가 분야(어쩌다로컬 소철원 대표)에서 최우수상(충남도지사상)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 만들기(농촌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 농촌형 교통모델, 주거 개선, 빈집 활용, 유희시설 활용) △우수활동가(사무장, 운영위원장 등), △농촌지역 창업가 총 4개 분야별 최고의 모델을 발굴하고자 추진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2년에 농촌지역개발사업 분야, 2023년 우수활동가 분야에 이어 올해 농촌지역 활동가 분야에서 콘테스트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3년동안 놓치지 않고 우수사례를 만드는 청양이 더 발전하여 다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4년 연속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들깨죽순 볶음 레시피

죽순은 동의보감에 "소갈을 멎게 하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열나는 증상을 완화하면서 기를 보호하며 성질은 차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순은 그냥 먹으면 아리기 때문에 아린 맛을 없애려면 삶아주어야 해요. 죽순이 잠길 정도로 물과 쌀뜨물을 섞어서 삶으면 됩니다. 맛! 쌀뜨물을 그냥 버렸다면 쌀가루를 풀어서 활용해도 좋아요. 죽순을 데칠 땐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는데 떠오르는 거품은 건어내주세요~ 아낌없이 싹다 건어내주세요

● **준비물:** 삶은 죽순 200g, 들깨가루 2큰술, 송송 썬 쪽파 1큰술, 다진마늘, 국간장, 소금, 식용유, 물 200ml, 참깨

- 1.팬에 식용유와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2. 삶은 죽순을 먹기 좋게 잘라 넣고 강불에서 볶아줘요
3. 물, 들깨가루, 국간장, 소금을 넣고 끓여줍니다
4.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고 중강불로 줄여주셔 졸여주세요
5. 자박자박한 상태로 완성되면 부족한 간은 소금을 추가해서 맞춰주세요
6. 송송 썬 쪽파와 고소한 볶음참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 해주세요

맛있는 들깨가루와 죽순은 청양먹거리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직매장팀
 문의: 042-823-0057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직매장 소비자 초청행사 성료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사장 이종필 부군수, 이하 "재단")은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청양먹거리직매장(이하 "직매장") 소비자 회원을 초청하여 화산천 생태체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화산천 생태체험은 도심 아이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주변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여 자연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체험활동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가족단위의 소비자 회원 100명(1회당 25명)을 초청하여 직매장 인근 화산천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편성하였다. 생태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농산물의 소중함과 소비자와의 관

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렸다.

재단 이종필 이사장은 "매년 진행되는 화산천 생

태체험으로 소비자들이 자연의 소중함 나아가 지역농산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